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

The Expectation of Future Financial Situation of Employed and Unemployed Wives in Household

제주전문대학 가정관리과
전임강사 고 보 선
한양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강 사 이 영 호
한양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 수 임 정 빈

Home Management, Che-Joo Juinor College

Full-Time Lecturer : Bo-Sun, Koh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Hanyang Univ.

Lecturer : Young-Ho, Lee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Hanyang Univ.

Prof. : Jeong-Bin, 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a causal model of employed and unemployed wives on the basis of the family resource management system theory. The data of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244 wives who lived in Seoul and were financial manager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Both employed and unemployed wives, knowledge of financial management was significantly predictor of financial planning. That is, household financial managers with more financial knowledge used more effective planning behaviors than did those financial managers with less financial knowledge. This results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enhancing the financial knowledge in the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2. For unemployed wives, expectation of household's future financial condition was influenced by age, household income, locus of control over their financial situation, and perception of financial management's effectiveness. The strongest predictor of expectation of the household's future financial situation was age. Younger managers were more optimistic about the future.

3.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pport theoretical framework on the basis of the family resource management system theory, both for employed and unemployed wives.

I. 서 론

현재 직업영역에서의 남녀간 역할공유는 산업화의 발달,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의식수준의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고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통계청, 1996), 앞으로도 여성고용확대와 자아실현의 욕구 등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사회에서는 맞벌이 가정이 정착될 것임을 전망하게 한다(옥선화·정민자, 1993).

현대사회에서 가계가 처한 관리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가족원의 요구는 다양한데 비하여 가계가 보유하거나 접근가능한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계관리자는 가족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적 자원의 제한으로 인하여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가족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가족원의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폭넓은 가계관리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기초로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진단 및 통제를 함으로써 자원에 대한 선택적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계관리자는 가계 목표에 비추어 가족원의 요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정자원을 조직하고 통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획과 수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리적 노력을 바탕으로 가계관리자는 현재의 가계재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정상태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된다고 사료된다.

가계관리행동은 대부분 주부가 전담하고 있으며 가족원들도 주부에게 관리행동의 수행을 기대하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주부의 취업여부와는 관계없이 기대되고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취업주부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중역할로 인해 전업주부에 비해 자원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가계관리행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가계관리를 포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로 구분하여 가계관리자가 인지한 관리효과와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을 결정짓는 요인을 체계적 접근방법에 근거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계재정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체계적 접근에 의한 가정자원관리체계

1) 투입요소

(1) 가계관리지식

가계관리지식은 가계관리를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으로써 정보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 정보란 상징적인 셋트내에서 의사소통, 의미, 설계하기 등과 같은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의도적인 사건으로 정보의 획득자체가 지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Black, 1971). 가계관리자는 정보처리능력에 의해 새로운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조직하여 가계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가계관리에서 선택한 결과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가계관리에서 선택한 결과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것은 가계관리행동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므로 가계관리지식과 가계관리행동은 상호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남편과 아내를 대상으로 가계재무관리 태도 및 행동을 조사한 Godwin 과 Carroll(1986)의 경우, 교육수준과 가계재무관리 태도 및 행동은 유의미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효과적인 가계관리행동과 이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지식과 정보를 측정하는 척도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식을 투입요소로 설정한 Titus, Fanslow, Hira(1989)의 연구에 따르면 금전관리자가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추천한 계획과 수행행동을 더 잘하였고, 금전관리자가 계획수행을 잘하면 자산수준이 높아지고 금전관리자가 추천한 수행행동을 할수록 만족하였다. Mugenda, Hira, 그리고 Fanslow(1990)의 연구결과에서도 재정지식은 금전관리행동의 결정변인으로 정적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만족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변화의도

가계는 환경적 요소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지, 발전하며 가계와 환경간의 상호작용 관계는 대처와 적응으로 구성된다. 유기체으로써 가계의 환경에 대한 대처는 유기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가계관리자가 현재의 재정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가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계의 목표를 달성하여 가계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가계관리자는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이러한 욕구와 목표를 달성시키기 어렵다고 인식할 때, 관리자는 이러한 현재의 수준과 표준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재정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생겨난다. 이러한 변화의도는 가정자원관리체계이론에서 볼 때, 가계관리행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심리적, 주관적 요소로 작용하므로 투입요소 중 요구요소로서 구체적인 관리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쳐 앞으로의 재정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즉 관리행동의 효용성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3) 통제성향

인간의 통제감은 이용가능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의 원천으로써(Williams, 1985), 복지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가정자원관리체계에서 보면, 통제성향은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산출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투입요소가 된다(고보선, 1996).

내적통제의 성향을 지닌 가계관리자는 경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아 목표달성을 위하여 관리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trumpel 등, 1976; Lefcourt, 1976), 계획이 주는 장점을 확신하므로 통제감을 향상시키는 적절한 관리행동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자원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내적통제성향이 강한 관리자일수록,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하며(Sandler & Lakey, 1982; 김혜정, 1993), 자신이 처한 재정상태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지하여 자신의 재정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높으며, 앞으로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한다(Danes, Retting, & Bauer, 1991; Hira, Fitzsimmons, & Bauer, 1993). 또한, 내적통제의 성향을 지닌 가계관리자는 생활표준과 생활수준간의 차이를 적게 인지하며, 재정관리만족과 생활의 질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ikening, 1982; Godwin & Carroll, 1985; Williams, 1986; Danes, 1991; Ness & Williams, 1991; 김혜정, 1993).

2) 변환과정요소

(1) 가계관리

가계관리는 인적 하위체계와 함께 변환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크게 계획과 수행으로 구분된다. 가계관리에서 계획행동의 여부는 관리행동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정적 목표달성과 자원의 극대화에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형태의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관리행동의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계획은 재정만족도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다(Heck, 1983; Deacon & Firebaugh, 1988; Titus, Fanslow, & Hira, 1989; 이기영·조영희, 1992).

가계관리의 수행행동은 계획단계에서 결정한 내용이 효과적인 산출을 낼도록 하기 위한 행동과정으로, 수행과정에서는 가계관리자 뿐만 아니라, 가족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가계관리자는 수행행동과정을 통해 현재의 가계재정상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계관리행동을 조정하거나 가계의 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

3) 산출요소

(1) 가계관리효과인지

가계관리효과인지란 가계관리자가 자신이 수행한 관리행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계관리행동의 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그동안 주로 가계관리만족에 초점을 두었다. 가계관리만족은 관리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만족정도로서, 관리에 대한 기대와 실제간의 일치에서 오는 주관적, 개인적 현상이라고 정의되는(두경자, 1990) 반면, 가계관리효과인지는 가계관리만족의 원인이 가계관리의 수행임을 구체화시켜 인지하는 것이므로 가계관리행동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현재의 가계관리에 대한 만족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

기대는 미래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는 주관적인 만족요소로, 앞으로의 재정적 상황을 자신의 표준에 근거하여 현재 자신이 처한 재정적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비교평가가 긍정적인 경우는 현재 자신의 가계재정상태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가계재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평가의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는 현재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 앞으로의 재정상태에 대한 기대를 낮게 평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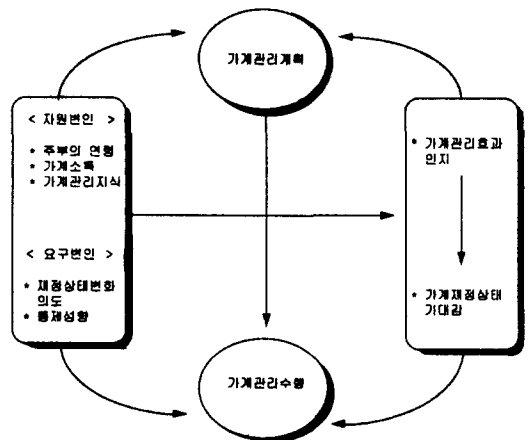
Davis와 Helmick(1985)의 연구결과 재정적 상황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는 재정적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Scannel(1990)은 앞으로 5년에 대한 계획을 물어 본 결과, 젊은 응답자는 연령이 많은 응답자보다 자원에 대한 요구가 많아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 자신이 속한 집단보다 더 나은 준거집단과 비교하게 되므로 현재의 재정적 복지상태에 대하여 불만족한다고 하였다.

Hira, Fitzsimmons, 그리고 Bauer(1993)의 연구에서는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기대는 가계관리자의 연령과는 부적인 관계를, 내적통제의 소재, 가계소득,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외부환경의 변화효과인지와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의 개념을 연구모형과 이론적 모델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에 따라 연구문제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가계관리계획과 수행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은 각각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가계관리효과인지와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은 각각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은 관련 변인들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보이는가?

2. 조사도구

1) 투입변인

투입변인은 자원변인과 요구변인으로 구성된다. 자원변인 중 가계관리지식 척도는 저축과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한 기초지식을 묻는 9개문항으로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으며, 맞는 답은 1점, 틀린 답과 모른다는 각각 0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의 분포는 최저 0점에서 최고 9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계관리지식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요구변인 중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변화의도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가계재정상태에 대하여 변화하고자 하는 요구가 큰 것을 의미한다. 통제성향 척도는 Rotter(1966)의 척도를 기초로 하였으며, 내적통제 성향과 외적통제 성향을 묻는 문항을 각각 4문항씩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alpha=.683$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계재정상태에 대하여 내적통제의 성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2) 변환과정변인

이 척도는 Godwin 과 Carroll(1986), Fitzsimmons 등(1993)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가계관리 계획과 수행을 각 5문항씩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계관리를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계획의 경우 $\alpha=.883$, 수행의 경우 $\alpha=.862$ 이다.

3) 산출변인

산출변인은 가계관리효과인지 변인과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가계관리효과인지 척도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계관리행동이 효과적이었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alpha=.891$ 이다.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 척도는 “현재와 비교했을 때, 앞으로 우리 가정의 재정상태는 좋아질 것이다.”의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가계재정상태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가계이며, 조사대상은 가계에서 대부분의 가계관리를 수행하는 주부이다. 조사지역은 서울시로 한정시켰으며, 조사는 1995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최종분석자료는 244부이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일원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관련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2. 가계관리계획의 결정요인

가계관리계획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표 3>과 같다. 가계관리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주부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가계관리지식($\beta=.415$; $\beta=.531$)으로 나타났다. 계획은 관리자가 행동을 수행하기 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

〈표 1〉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 AGE	1.000								
2. INC	.268** (.374**)	1.000							
3. KNO	.079 (.030)	-.048 (-.069)	1.000						
4. INT	-.043 (-.011)	-.358** (.019)	.157 (.058)	1.000					
5. CON	-.067 (.079)	.089 (.224)	-.045 (-.034)	-.073 (-.106)	1.000				
6. PLA	.028 (-.029)	-.074 (-.124)	.484** (.540**)	.131 (.114)	.081 (-.096)	1.000			
7. IMP	.136 (-.076)	-.001 (-.045)	.486** (.471**)	.112 (-.006)	.083 (-.139)	.707** (.743**)	1.000		
8. EFF	.166 (-.094)	.024 (-.031)	.445** (.426**)	-.007 (-.080)	.001 (-.151)	.688** (.690**)	.733** (.764**)	1.000	
9. EXP	-.237* (-.117)	.101 (.098)	-.043 (.003)	.060 (.292*)	.190* (.039)	.016 (-.024)	.032 (-.090)	.001 (-.024)	1.000

주: () : 취업주부

AGE(주부의 연령), INC(월평균 가계소득), KNO(가계관리지식),
INT(재정상태변화의도), CON(통제성향), PLA(가계관리계획),
IMP(가계관리수행), EFF(가계관리효과인지), EXP(재정상태기대).

** $P < .01$; *** $P < .001$. $N=158$ (전업주부); 85(취업주부).

상하는 인지적 활동이다. 이때 가계관리지식이 풍부한 경우는 가계의 목표를 구체화시켜 가족원의 다양한 욕구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리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가계관리의 계획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계관리자의 풍부한 관리지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계관리계획에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예측되었던 재정상태변화의도는 두집단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관리계획에 대한 관리지식의 영향력이 다른 독립변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하지는 않지만 가계관리계획에 재정상태변화의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현재의 재정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계획의 효율성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3. 가계관리수행의 결정요인

가계관리수행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표 4〉와 같다. 전업주부의 경우는 연령이 많을수록($\beta=.106$), 가계관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수록($\beta=.128$), 내적통제성향을 지닐수록($\beta=.114$), 그리고 가계관리를 효과적으로 계획할수록($\beta=.638$), 가계관리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주부의 경우는 월평균 가계소득이 많을수록($\beta=.121$), 가계의 재정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적을수록($\beta=-.124$), 그리고 가계관리를 효과적으로 계획할수록($\beta=.844$), 가계관리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가계관리수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가계관리계획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의 경우가 전업주부보다 가계관리수행에 대한 계획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음을 볼 때, 수행의 제약조건을 안고 있는 취업주부의 경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집 단	전업주부(N=195)		취업주부(N=85)	
		N(%)	평균(표준편차)	N(%)	평균(표준편차)
주부의 연령	30세미만	16(10.1)	41.89(8.86)	13(15.3)	38.04(8.87)
	30-39세	41(25.8)		35(41.2)	
	40-49세	70(44.0)		28(32.9)	
	50세이상	32(20.1)		9(10.6)	
가계소득	150만원미만	32(20.1)	247.06(158.37)	8(9.4)	269.98(150.26)
	150-250만원미만	65(40.9)		32(37.6)	
	250-350만원미만	30(18.9)		29(34.1)	
	350만원이상	32(20.1)		16(18.8)	
가계관리지식	0점	6(3.8)	5.16(7.68)	2(2.4)	6.32(10.49)
	1-4점	82(51.6)		42(49.4)	
	5-8점	59(37.1)		31(36.5)	
	9점이상	12(7.5)		10(11.8)	
가계재정상태a 변화의도	1점	3(1.9)	3.40(1.04)	2(2.4)	3.67(1.21)
	2점	32(20.1)		14(16.5)	
	3점	48(30.2)		16(18.8)	
	4점	50(31.4)		35(41.2)	
	5점	26(16.4)		17(20.2)	
통제성향a	1 - 2점	18(54.1)	3.70(.65)	8(9.4)	3.94(.69)
	3 점	86(54.1)		30(35.3)	
	4점이상	55(34.6)		47(55.3)	
가계관리계획a	1점	15(9.4)	2.75(.96)	2(2.4)	2.98(1.30)
	2점	91(57.2)		46(54.1)	
	3점	46(28.9)		32(37.6)	
	4점이상	7(4.4)		5(5.9)	
가계관리수행a	1점	5(3.1)	3.08(.91)	1(1.2)	3.28(1.27)
	2점	62(39.0)		30(35.3)	
	3점	79(49.7)		46(54.1)	
	4점이상	13(8.2)		8(9.4)	
가계관리효과인지a	1점	10(6.3)	2.70(1.05)	3(3.5)	2.93(1.36)
	2점	86(54.1)		43(50.6)	
	3점	55(34.6)		30(35.3)	
	4점이상	8(5.0)		9(10.6)	
가계재정상태기대a	1점	6(3.8)	3.62(1.01)	0	4.02(1.04)
	2점	12(7.6)		7(8.2)	
	3점	50(31.4)		13(15.3)	
	4점	59(37.1)		40(47.1)	
	5점	32(20.1)		24(28.2)	

주: a: 5점척도로 환산한 점수임.

〈표 3〉 가계관리계획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종속변인	가계관리계획			
	전업주부(N=159)		취업주부(N= 85)	
독립변인	b	β	b	β
주부의 연령	.001		-.002	-.012
월평균 가계소득	-9.991E-05	.011	-6.140E-04	-.071
가계관리지식	.466	-.017	.594	.531***
재정상태변화외도	.060	.415***	.081	.075
통제성향	.087	.065	-.095	-.050
상수	1.929		2.878	
$R^2=.194$ $F=7.353^{**}$ $R^2=.309$ $F=7.050^{***}$ $D-W=2.034$ $D-W=2.012$				

주: *** $P<.001$

〈표 4〉 가계관리수행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종속변인	가계관리수행			
	전업주부(N=159)		취업주부(N= 85)	
독립변인	b	β	b	β
주부의 연령	.011	.106*	-.013	-.086
월평균 가계소득	2.320E-05	.040	.001	.121*
가계관리지식	.137	.128*	.037	.034
재정상태변화외도	.029	.033	-.130	-.124*
통제성향	.159	.114*	-.175	-.095
가계관리계획	.608	.638***	.820	.844***
상수	1.130		2.200	
$R^2=.542$ $F=29.937^{***}$ $R^2=.741$ $F=37.203^{***}$ $D-W=2.067$ $D-W=1.887$				

주: * $P<.05$; *** $P<.001$

우 효과적인 관리계획이 더욱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연령은 전업주부에게는 가계관리수행의 경력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취업주부에게는 시장노동수행의 경력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계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가계관리자가 습득하고 있는 관리지식은 전업주부의 경우만 가계관리수행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취업주부는 가계관리지식을 습득하거나 정보수집에 필요한 시간투자와 노력에 제약은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통제성향이 전업주부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것은 가계관리의 주도적인 권리와 의무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내적통제의 성향을 보이거나, 취업주부의 경우는 가계관리에 대한 절대적인 시간부족과 이중역할 등으로 내적통제의 성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취업주부의 경우는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재정상태에 대한 변화외도가 적을수록, 가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정상태에 대한 변화외도가 클수록 직접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폐소득을 증가시키는 시장노동에 일차적 관심이 있을 것이므로 가계관리수행의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시간제약 상태에서 효율적 가계관리를 위해서는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에 대한 상품화, 사회화로 금전지출의 요구도가 더 크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가계관리수행이 원만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가계관리효과인지의 결정요인

가계관리효과인지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표 5〉와 같다. 가계관리효과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주부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재정상태변화외도($\beta=-.113$; $\beta=-.123$), 가계관리계획($\beta=.350$; $\beta=.301$), 그리고 가계관리수행($\beta=.477$; $\beta=.603$)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가계관리효과인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가계관리수행으로, 수행은 계획한 관리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 행위이므로, 가계관리자가 수행을 잘 할수록 관리자는 실천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가계관리가 효과적이었다고 인지한다. 따라서 가계관리자는 관리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행동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가계관리자가 재정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현재의 재정상태가 바라는 재정상태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여 불만족한 상태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만족을 극복하고자 관리자에게

〈표 5〉 가계관리효과인지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종속변인	가계관리효과인지			
	전업주부(N=159)		취업주부(N= 85)	
독립변인	b	β	b	β
주부의 연령	.010	.085	-.010	-.060
월평균 가계소득	-3.656E-05	-.006	6.704E-04	.074
가계관리지식	.040	.033	-.007	-.006
재정상태변화외도	-.113	-.113*	-.138	-.123*
통제성향	-.036	-.022	-.123	-.062
가계관리계획	.384	.350***	.314	.301**
가계관리수행	.549	.477***	.646	.603***
상수	1.040		2.068	
R ² =.615 F=34.396*** R ² =.778 F=38.523***				
D-W=2.030 D-W=2.147				

주: * P<.05, ** P<.01, *** P<.001

재정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생기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관리의 효과를 인지하고 있으므로 재정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생겨남을 암시하는 것이다.

5.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의 결정요인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의 중다회귀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전업주부의 경우, 주부의 연령(β=-.286), 가계소득(β=.217), 통제성향(β=.210), 그리고 가계관리효과인지(β=.24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가 젊을수록 열망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용가능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가계에 대한 내적인 통제의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내적통제의 성향을 지닌 전업주부는 가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동기부여와 가계관리행동에 대한 가치부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가계관리행동에 대한 만족과 동시에 앞으로도 자신이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될 가계재정상태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생각된다.

〈표 6〉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의 제변인의 영향력

종속변인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			
	전업주부(N=159)		취업주부(N= 85)	
독립변인	b	β	b	β
주부의 연령	-.033	-.286***	-.022	-.176
월평균 가계소득	.001	.217**	8.284E-04	.120
가계관리지식	-.107	-.077	.031	.034
재정상태변화외도	.141	.146	.280	.327**
통제성향	.324	.210**	.194	.129
가계관리계획	-.012	-.012	.009	.012
가계관리수행	.037	.034	-.292	-.358*
가계관리효과인지	.041	.242*	.222	.293*
상수	2.829		3.109	
R ² =.150 F=3.284** R ² =.164 F=1.864*				
D-W=1.880 D-W=1.941				

주: * P<.05; ** P<.01; *** P<.001

취업주부의 경우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재정상태변화외도(β=.327), 가계관리수행(β=-.358), 그리고 가계관리효과인지(β=.293)로 나타났다. 재정상태변화외도가 클수록 취업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취업주부는 가계관리행동보다 시장노동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가계관리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이 제한되어 제대로 관리행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주부의 취업은 또 하나의 소득원을 제공함으로써 가계소득의 증대를 가져와 가계의 소비지출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현재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가계관리에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가계의 재정상태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6.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의 인과모형

1) 전업주부의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의 인과모형

앞에서 이루어진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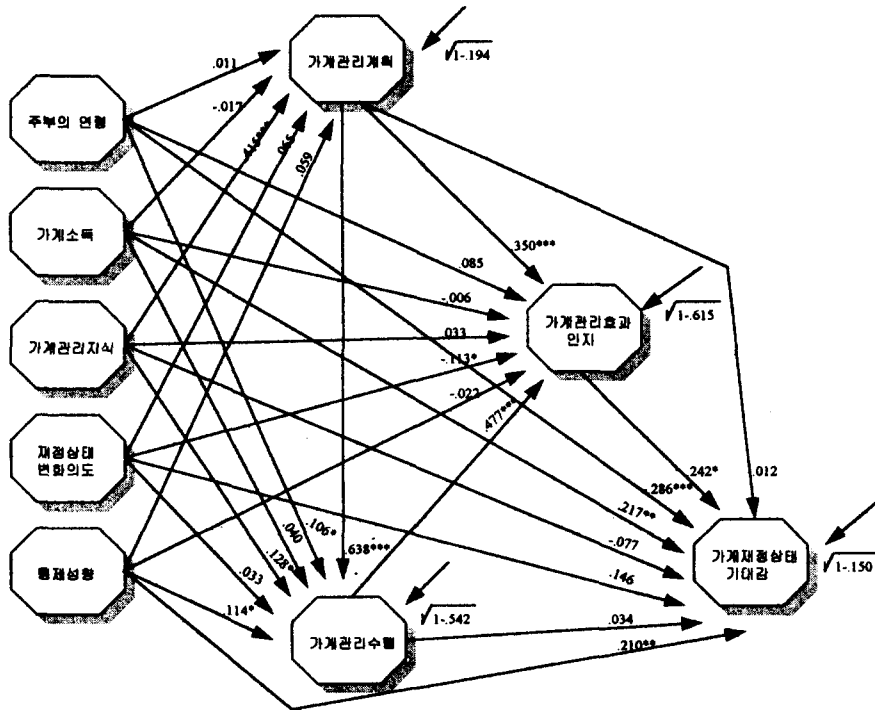
〈그림 2〉와 같은 경로모형을 도출하였으며, 각 독립 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매개 변인을 경유하여 작용하는 간접효과로 분해하였다 (〈표 7〉).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효과를 보면, 주부의 연령, 통제성향, 가계소득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주부의 연령은 비인과효과가 .01로 본 연구모형에 의해 분석되지 못 하지만, 가계재정상태에 대

〈표 7〉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 인과모형에서의 공변량 분해: 전업주부

변 인	인과효과		총인과효과	비인과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주부의 연령	-.286***	.039	-.247	.010	-.237
가계소득	.217**	.004	.221	-.120	.101
가계관리지식	-.077	.097	.020	-.063	-.043
재정상태변화의도	.146	-.011	.135	-.075	.060
통제성향	.210**	.021	.231	-.041	.190
가계관리계획	-.012	.181	.169	-.153	.016
가계관리수행	.034	.115	.149	-.117	.032
가계관리효과인지	.242*	.	.242	-.241	.001

주: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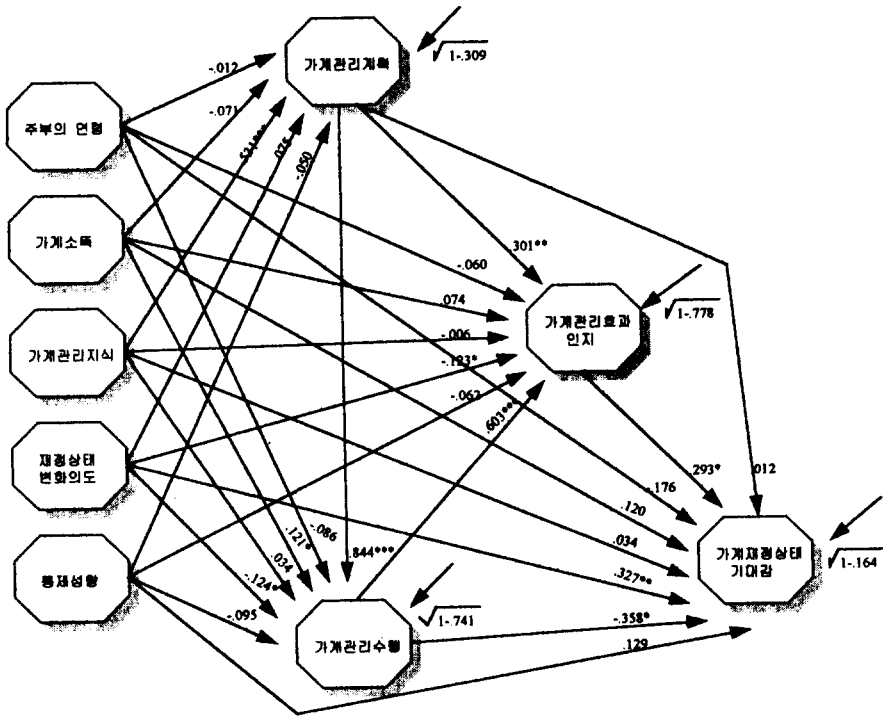


〈그림 2〉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의 인과모형: 전업주부

〈표 8〉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 인과모형에서의 공변량 분해: 취업주부

변인	인과효과		총인과효과	비인과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주부의 연령	-.176	-.001	-.177	.060	-.117
가계소득	.120	.001	.121	-.023	.098
가계관리지식	.034	-.036	-.002	-.005	.003
재정상태변화인도	.327**	-.018	.309	-.017	.292
통제성향	.129	.002	.131	-.092	.039
가계관리계획	.012	-.065	-.053	.029	-.024
가계관리수행	-.358*	.177	-.181	.091	-.090
가계관리효과인지	.293*		.293	-.317	-.024

주: * $P < .05$; ** $P < .01$



〈그림 3〉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의 인과모형: 취업주부

한 기대에 -.286의 직접효과와 .039의 간접효과를 보임으로써 변인들 중 총인과효과가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인과효과가 큰 변인은 통제성향으로 .210의 유의미한 직접효과와 .021의 정적인 간접효과를 보여 총인과효과를 증가시켰으나, 비인과효과가 -.

041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직접효과가 .217로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보였으며, 매개변인을 경유한 간접효과가 .004로 총인과효과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비인과효과가 -.120으로 설명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2) 취업주부의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의 인과 모형

앞에서 행해진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림 3>과 같은 경로모형을 도출하였으며, 각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작용하는 간접효과로 분해하였다(<표 8>).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효과를 보면, 재정상태변화의도, 주부의 연령, 가계소득, 가계관리수행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총인과효과가 가장 큰 재정상태변화의도변인은 .327의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보였으나, 매개변인을 경유한 간접효과가 -.018로 부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총인과효과를 감소시켰으며, 비인과효과가 -.017로 본 연구모형에 의해 분석되지 못하였다.

그 다음으로 인과효과가 큰 변인은 가계관리효과 인지로 .293의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보였으나, 비인과효과가 -.317로 나타났다. 가계관리수행은 -.358의 직접효과와 .177의 간접효과로 총인과효과를 증가시켰다.

이상을 요약하면, 가계관리자가 인지한 앞으로의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전업주부의 경우는 주부의 연령, 통제성향, 가계소득 등의 순으로, 취업주부는 재정상태변화의도, 주부의 연령, 가계소득, 가계관리수행 등의 순서로 영향을 미쳤다.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에 유의미한 정적인 간접효과를 보인 변인은 전업주부의 경우는 주부의 연령, 가계소득, 통제성향 등이며, 취업주부는 가계관리수행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는 젊은 가계관리자일수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내적통제의 성향을 보일수록 재정상태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갖을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이러한 기대를 향상시켰다. 취업주부는 현재 가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추가 소득원으로서 가계에 대한 기여를 함으로써 가계재정상태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의 인과관계는 전업주부와 취

업주부 모두 입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로 구분하고 이를 체계적 접근방법에 근거하여 투입요소 중 자원요소에는 주부의 연령, 월평균 가계소득, 가계관리지식, 요구요소에는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변화의도와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통제성향을, 변환과정요소는 가계관리 계획과 수행을, 산출요소는 가계관리자가 인지한 관리효과와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를 설정하여, 이들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가계관리행동과 관련된 지식은 계획행동에 중요한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즉, 가계관리자가 가계관리에 필요한 지식이 풍부한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가계의 목표를 구체화시켜 가족원의 욕구 중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관리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계관리자가 가계관리행동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많을수록, 효과적인 가계관리 계획을 수립할수록, 관리자는 가계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업주부의 경우, 가계관리의 계획과 수행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가계관리지식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교육수준과 가계관리행동간에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간과되었던 가계관리지식의 변인을 포함시키고 가계관리지식의 중요성을 설명함으로써 둘간의 관계를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취업주부의 경우 가계관리의 수행에 가계관리지식보다 가계관리의 계획이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셋째, 두 집단 모두 현재의 가계재정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적고 가계관리의 계획과 수행을 효과적으로 할수록, 현재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관리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적인 가계관리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관리행동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갖도록 하였다.

넷째, 전업주부의 경우, 젊고 가계소득이 많고 내적통제의 성향이 강하고 가계관리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앞으로의 가계재정상태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반면 취업주부의 경우는 가계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수록 현재의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불만족으로 재정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할수록 자신이 수행한 가계관리에 만족할수록 앞으로의 가계재정상태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다섯째,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의 인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경우 모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계관리지식은 가계관리의 계획과 수행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가계의 재정상태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효율적인 가계관리의 계획과 행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지식을 제공하여 가계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가계관리 계획과 수행의 관리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가계관리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의 연구모형이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검증되었다. 따라서, 이 모델을 가계관리행동과 만족 및 기대감에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가정생활주기단계에 적용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고보선(1996), “주관적 가정경제복지척도 개발을 위한 관련변인 고찰”, 제주전문대학 논문집, 17, 293-309.
 2) 고보선·이영호(1995), “가정경제복지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변인의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3(2), 269-280.

3) 김민정(1994),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상호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 분석: 체계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5-207.
 5) 김혜정(1995), “주부의 화폐관리전략과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두경자(1990), “가정관리체계모형의 실증적 검토”,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한국여성개발원(1996), 여성통계연보.
 8) 옥선화·정민자(1993), 결혼과 가족, 서울:하우.
 9) 이기영·조영희(1992), “관리기능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0(4), 279-292.
 10) Black, K.D.(1971), *A System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the Marital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Univ.
 김경숙·이정우(1995),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11에서 재인용.
 11) Danes, S.M.(1991), “Locus of control, Gap between standard and level of living and Satisfaction: A path model”, *H.E.R.J.* 19(4), 282-291.
 12) Danes, S.M. & Morris, E.W.(1989), “The Factors Affecting a Family’s Plan to Change its Financial Situa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3), 205-215.
 13) Davis & Helmick(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s”, *H.E.R.J.* 14(1), 123-131.
 14) Deacon, R.E. & Firebaugh, F.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Boston: Allyn & Bacon.
 15) Godwin, D.D. & Carroll, D.D.(1986),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s and Behaviour of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77-96.
 16) Heck, R.K.Z.(1983), “A Preliminary test of a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 117-135.
- 17) Hira, T.K., Fitzsimons, V.S., & Bauer, J.L.(1983), "Factors Associated with Expectation of Households Future Financial Condition", *Journal of Family Economic Issues*, 14(3), 237-256.
- 18) Mugenda, O.M., Hira, T.K., & Fanslow, A.M. (1990), "Assess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s,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of Quality of Life,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4), 343-360.
- 19) Sandler, I.N., & Lakey, B.(1982), "Locus of Control as a stress moderator: The role of control perception and social suppor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65-80. Eun Min Hyun, Bauer, J.W., & Hogan, M.J.(1993),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215-236.
- 에서 재인용.
- 20) Sumarwan, U. & Hira, T.K.(1993), "The Effects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Income Adequacy on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of Rural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343-363.
- 21) Titus, P.M., Fanslow, A.M., & Hira, T.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 (4), 309-317.
- 22) Walson, C.O. & Fitzsimmons, V.S.(1993), "Financial Manager's Perception of Rural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Composite Measu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193-214.